



5면

'전주국제그리트페스티벌, 12일부터'

2023년 5월 3일 수요일(음 3월 14일) 제3256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로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특별자치도 자생력 높일 바이오·방위

도, 전략산업 우위 선점 본격 행보

김지사, 바이오 등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방문

국내 최고수준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전북도가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련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2일 대전에 소재한 4개 국가연구기관을 찾아 방문해 전라북도 바이오·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방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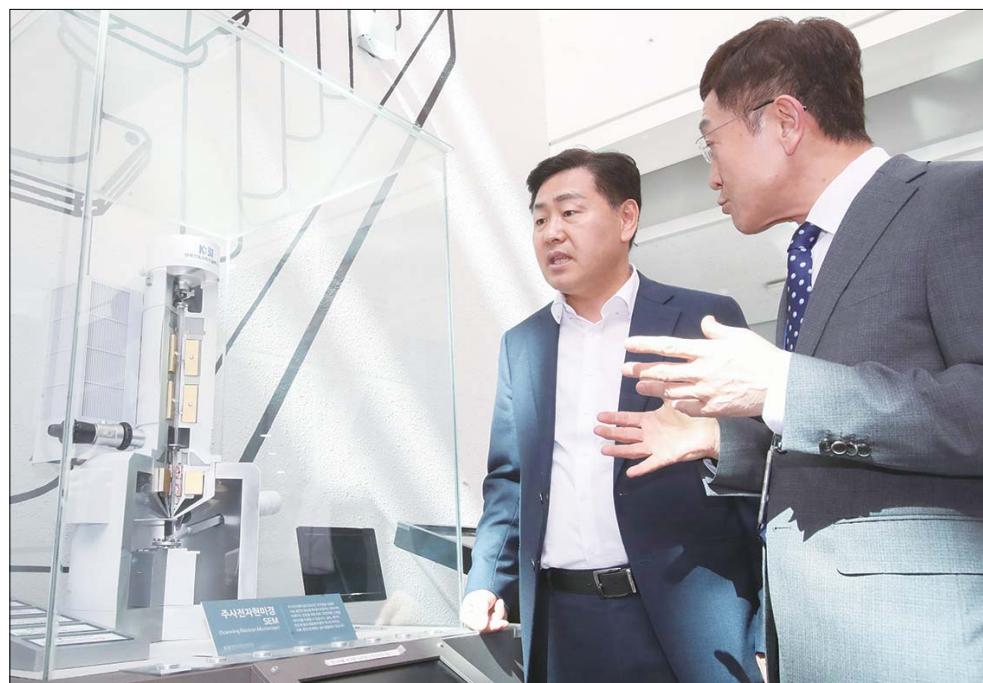
특히 바이오와 방위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도 삼고 있어 전북도가 이를 사업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향후 커다란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특별자치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업분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가장 먼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유석재 원장을 만나면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및 한국형 핵융합로 기술개발 추진으로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내외 사업동향을 탐색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소속기관인 폴리모자기술연구소가 지난 2012년 전북 군산에 개소한 뒤 폴리모자 원천기술 및 응복합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신에너지·바이오·분야 등으로 새로운 분야로 개척해 나가는 등 인연이 깊은 곳이다.

김 지사는 이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해 전북 출신인 신형식 원장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기초과학과 전북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대한 연계성과 개선점 등 진흥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지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중소·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술사업화 등의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연구원 전주센터 등을 통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의 확장성·발전 방향·협력방안 등을 펼쳤다.



김관영 도지사(왼쪽)는 2일 대전광역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라북도 바이오·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등을 접촉했다.

전북도는 현재 연구개발 인프라의 추가 구축을 위해 정읍에 소재한 전북 분원과 유류부지를 활용하는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 육성은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며 “전북도의 강점인 새만금과 농생명 소재를 활용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허브 중심지 조성, 신기술 기반 바이오생태계 구축 등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 연구기관과 상호연대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바이오·탄소·방산 등 전략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첨단 실리콘 소재 생산기업

정읍첨단과학산단에 55억 투자

세라진첨단소재, 도·정읍시와 협약… 올해 신축 마무리



정읍시와 전북도는 2일 첨단 실리콘 소재 생산기업인 (주)세라진첨단소재와 55억원을 투자하고 20여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 김대규 (주)세라진첨단소재 대표를 비롯한 회사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세라진첨단소재는 정읍첨단과학산단단지 내 1만990㎡(3,297평) 부지에 55억을 투자하고 20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올 해 공장 신축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세라진첨단소재의 주요 생产业품은 실리콘 소재로 개발한 표면처리제품으로 친환경적이며 고기능성 제품이다. 이는 밀암물질 등이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표면처리제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글로벌 소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주)에 납품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선화 전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이제 막 신설된 기업이지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라진첨단소재가 정읍에 터를 잡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더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주)세라진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주)세라진첨단소재가 전북연구개발특구인 정읍첨단과학산단단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규 (주)세라진첨단소재 대표는 “저희 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드린다.

환영해 주신만큼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저희 (주)세라진첨단소재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전북에 온다

세르게이 부브카 등 아태 마스터스 개회식 참석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간 전북 14개 시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7개국 1만4,000여명의 참가자와 축구·탁구·배드민턴 등 25개 종목에 출전한다.

대회 개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하며 해외에서는 세르게이 부브카 IMGA 회장, 세르게이 미양 등, 마누엘라 디 센타 IMGA 위원 등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

석한다.

먼저 세르게이 부브카 IMGA 회장은 현재 IOC 위원과 세계육상연맹 이사로 활동 중이며, 올림픽(4개)과 세계선수권(10개)에서 14개의 금메달을 따낸 우크라이나의 살아있는 스포츠 전설이다.

싱가포르의 세르미양 등 IMGA 위원은 IOC 부위원장과 집행위원회 위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IMGA에서 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 국적의 마누엘라 디 센타 IMGA 위원은 1999년~2010년 세계선수였던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대회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 나서 대회에 화려한 개막을 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1894, 그날을 기억하다

일자 5.11(목) 11:00 - 12: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

식전 행사

10:00-10:55

11:00-11:50

식후 행사

11:50-13:30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

제56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일자 5.11(목) 10:00 - 20:00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정읍 황토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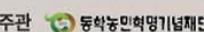


기념식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기념제 주최



정읍시

주관



제56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공식회의 5월 9일 14:00 - 20:00

연대회의 5월 10일 09:00 - 16:00

행사참석 5월 11일 국가 기념식 및 기념제 참석

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교육관

연대회의 주최



정읍시